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임대경¹, 오현숙^{2*}

¹한신대학교 정신분석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²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Between Temperament and Offensive Behavior

Daekyeong Lim¹, Hyunsook Oh^{2*}

¹Master,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Psychoanalysis, Hanshi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childcare, Han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음주 후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음주자의 기질이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99명에게 기질 및 성격검사(TCI)-성인용,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질 중 자극추구가 공격성에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였다.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그 경로 내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을 연결하는 기제로서 자극추구 성향은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직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통해서만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질, 자극추구, 공격성, 음주행동, 가해행동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emperament of adult drinker on offensive behavior and analyz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To this purpose, 299 subjects were assessed through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for adults, Korean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Korean Alcohol Use Disorder diagnosis. As the results, 'Novelty seeking' had the highest level of explanation for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velty seeking' and offensive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In its cours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both was shown as complete medi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agg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were the factors of connecting 'Novelty seeking' and offensive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 of 'Novelty seeking' does not have direct influence on offensive behavior but only through aggression and offensive behavior that it has such effect.

Key Words : Temperament, Novelty seeking, Aggression, Drinking behavior, Offensive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k Oh(hyunsookoh@hs.ac.kr)

Received December 19,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3,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하려거나,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곤 한다. 또한 사회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술을 마시게 된다[1]. 이처럼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잦은 과음, 폭음 등의 과도한 음주는 신체 및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폭력, 대인관계 문제, 음주운전을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직업적 영역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2].

한국 사회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3], 2018년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19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이 65.4%로 1986년 48.3%에서 약 30년 사이에 17.1%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한 점은 2011년도 전체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이 27.6%였는데 이중 알코올 의존이 5.3%, 알코올 남용이 8.0%로 알코올 관련 장애(13.3%)가 대표적 정신장애로 간주되는 정신병적 장애(0.6%), 기분(7.5%) 및 불안 장애(8.7%) 등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정신장애 중 알코올 관련 장애가 유병율도 높고, 사회적 손실 규모도 커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 후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4] 만들어진 사례도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가 35만 건에 이르고 이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찰력의 손실은 약 5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과음 및 폭음은 단순히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적 음주를 넘어 가정을 위협하고, 각종 폭력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5].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과음 및 의존증상을 포함하여, 신체적·사회적·학업적·가족관계·대인관계 등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를 음주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6].

문제음주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폭음뿐만 아니라 알코올 남용 혹은 의존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지표로 간주된다. 특히, 한 자리에서 6잔 이상의 술을 한 달에 2~4회 이상 마실 경우,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을 진단하는데 있어 높은 민감도(86%)와 특이도(72%)를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7,8]. 또한 Wechsler 등[9]은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음주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음주자들에 비해, 기물파손, 상해, 음주운전 등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문제음주를 조사하기 위해서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을 살펴보고자 하였고[10] 특히, 음주 후에 나타나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의 가해행동의 효율적인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음주자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 후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기질은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기질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11,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원인으로 음주자의 기질을 중요 변인으로 보았다. 기질이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개인의 정서 및 행동 양식으로서 생애 초기부터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비교적 변함이 없는 경향성으로 여겨진다[13,14].

이러한 기질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자동적 정서적 반응성향으로서, 자연히 부정 정서 처리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기질적 성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음이나 빈번한 음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되는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질의 변화 없이는 어려우며,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행동의 변화를 위해 심리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시사되고 있다[15]. 즉,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중재 없이, 자발적인 동기나 의지만으로는 음주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알코올 의존, 남용 및 중독과 같은 심각한 음주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유발하는 기질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음주 습관뿐만이 음주 관련 가해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loninger 등[16]이 제시한 기질 차원과 알코올 관련 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요인이 알코올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7].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을 추구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질 및 알코올이 제공하는 자극에 더욱 접근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며,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알코올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18,19]. 새로운 경험 추구는 충동성과 같은 행동통제의 부족을 반영하며,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잦은 과음과 폭음 및 행동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하는 데 취약한 면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부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알코올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폭음, 음주 후 가해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음주에 있어 기질 차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알코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loninger, Przybeck, Svracic과 Wetzel[21]은 그들의 연구에서 심리장애의 유무나 심각성을 변별함에 있어, 기질적 속성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질적 취약성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매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행동에는 기질이 영향을 미치는데, 같은 기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도 개인이 부정적 정서나 음주 습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기질과 음주 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격성이 있다[22]. 분노 및 공격성은 모든 개인에게 빈번히 경험되는 보편적인 정서이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호작용 하는 동안에 종종 발생하며, 공격성의 표현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적절한 공격성의 표현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개인의 분노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은 자신에게 다양한 신체 및 심리-정서적인 증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과의 상호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억압된 분노 및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개인차가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 폭언, 협박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위협적인 공격행동은 자신의 분노나 적대감을 조절하는데 실패했거나 억압되어온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임을 추정할 수 있다.

알코올 및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주연, 이태경, 윤해주[18]가 공격성 질문지를 통해 알코올 의존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격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알코올 의존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신체적 공격성, 분노, 적대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공격성이 높은 음주자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 표현을 자주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손상적인 음주 형태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다[24].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가 없는 음주자에 비해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23]. 곧, 음주 후 유발되는 문제 행동 기저에는 공격성과 분노라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질과 가해행동을 연결하는 잠정적 기제로 공격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의 알코올 관련된 중독 연구를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지속적인 자기조절실패로 개념화되고 있다[25,26]. 즉,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폭음이나 잦은 음주를 하는 빈도가 낮고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8].

잦은 술자리나 폭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고 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음주행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음주량과 횟수 조절의 어려움이 클수록 음주문제는 장기화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건설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음주 후 가해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음주행동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질과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음주행동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격성이 음주자들의 파괴적인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성이 높을수록 음주량과 빈도와 같은 음주행동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격성은 음주 행동 조절 곤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분노감, 적대감,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빈도나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공격성과 그로 인해 음주행동 조절의 곤란이 순차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순차적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이들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알코올 관련 장애의 유병률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 후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한 개인에게

어떤 치료적 개입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음주행동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0대에서 7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 남녀는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성의가 없거나 무응답으로 답했던 4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299명이다. 남성이 159명(53.2%), 여성이 140명(46.6%)이었다. 평균연령은 남성=41.89세($SD=11.78$), 여성=43.24($SD=11.80$)세를 나타냈으며 전체 표본 299명을 7개 연령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연령별 빈도는 30대 남성이 39%, 여성이 34.9%로 가장 높았고, 남성 중 70대가 0.6%, 여성은 60대가 9.1%로 제일 낮았다. 학력은 남성 대상자 중에 54.1%가 대졸로 가장 많았고, 여성 또한 47.1%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남성, 여성 집단에서 80%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높은 학력을 보였다. 직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사무원, 영업직, 서비스업이 57.9%로 가장 높았고, 여성 또한 사무원, 영업직, 서비스업이 41.4%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을 보면 남성은 200~3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00~30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높았다.

2.2 절차

연구의 표집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를 통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이중 연구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예비 면접이 실시되었다. 이때 연구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설문 조사 시간은 개인에 따라 대략 30~50분 정도가 소요 됨을 설명 하였다. 연구 내용과 시간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최종 연

구대상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작은 보상으로 서 커피 쿠폰이 제공되었다.

2.3 측정도구

2.3.1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성인 남녀 음주자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진 독일어판 TCI-RS를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13]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기질 및 성격검사(TCI)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 문항을 제외한 81문항의 기질 문항만 사용하였다. 기질 차원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Cloninger 등 [16]은 기질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자극추구(Novelty Seeking)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관련 있는 정서 상태는 화(anger)이다. 위험회피(Harm Avoidance)는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와 관련이 있으며, 위험이나 처벌과 같이 원치 않는 상황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두려움(fear)과 같은 정서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은 강화가 지속되지 않아도 사회적 보상인 친밀감 혹은 애착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인내력(Persistence)은 강화가 지속되지 않더라도 한 번 봉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용 TCI의 4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일반 성인집단의 경우 .77~.88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69로 나타났다.

2.3.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

Buss와 Perry가 공격성에 따른 인지, 행동, 정서의 3요인 모델로 제작한 검사이다. 서수균과 권석만이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로 번안하고 표준화하였다. 문항은 총 27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며,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척도들은, 신체적 공격성(9문항)과 언어적 공격성(5문항)은 도구적 혹은 운동요소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것을 말

한다. 분노감(5문항)은 행동의 정서적 요소로써, 공격을 위한 준비성과 생리적 각성상태를 나타낸다. 적대감(8문항)은 세상을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며,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수균과 권석만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2.3.3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K)

세계보건기구(WHO)는 위험 음주자를 사전에 선별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폐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AUDIT-K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음주량과 빈도, 음주 의존도, 통제 결여 및 음주관련 위험행동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묻는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검사는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가해 행동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서 평가하는 음주 후 타인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본 연구에서도 음주 가해 행동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검사의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응답 자료들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와 사용한 척도의 상관, 신뢰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3.4의 model 4와 6을 사용하여 매개분석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질, 공격성, 음주 행동 및 가해 행동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질, 공격성, 음주 행동 및 가해 행동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가해 행동은 기질 요인 중 자극추구, $r=.23, p<.0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의 모든 하위 요인은 가해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음주량과 음주 빈도로 이루어진 음주행동도 가해행동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기질 요인과 공격성을 보면, 자극추구는 공격성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위협회피는 공격성 하위 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 $r=.13, p<.05$ 과 적대감, $r=.25, p<.001$ 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질 요인 중 자극추구는 음주 행동 중 음주빈도, $r=.24, p<.001$ 와 음주량, $r=.36,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Novelty Seeking	-	.10	.21***	.24***	.45***	.33***	.37***	.36***	.24***	.36***	.23***
2 Harm Avoidance		-	-.15*	-.36***	.13'	.02	.14'	.25***	-.02	.00	.04
3 Reward Dependence			-	.37***	-.03	.06	.06	-.04	.07	.09	-.01
4 Persistence				-	.02	.03	.07	-.02	.03	.06	-.01
5 Physical Aggression					-	.63***	.61***	.75***	.59***	.66***	.30***
6 Verbal Aggression						-	.67***	.55***	.44***	.52***	.18**
7 Anger							-	.63***	.40***	.46***	.21***
8 Hostility								-	.49***	.54***	.29***
9 Drinking frequency									-	.76***	.27***
10 Drinking amount										-	.24***
11 Offensive behavior											-
M	32.52	38.12	41.71	42.47	23.74	14.94	14.73	22.88	2.48	2.37	.32
SD	10.59	10.845	8.34	9.68	7.68	3.49	3.36	5.49	1.24	1.55	.85

* $p < .05$, ** $p < .01$, *** $p < .001$

3.2 기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하위요인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기질 차원은 공격성 전체 변량의 28%를 설명하였으며, 공격성에 관한 회귀모델은 $F(7.291)=17.37,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으로 살펴보면, 기질 차원 중에서는 자극추구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설정하여 단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자극추구, 종속변인으로 가해행동, 매개변인으로 공격성을 투입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극추구는 가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B=.112, p<.01$, 공격성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743, p<.001$. 자극추구와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012, p<.01$, 자극추구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9, p=.061$. 매개변인인 공격성은 자극추구와 가해행동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 공격성을 더하면 4.9%를 추가로 설명하여서, 총 설명량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emperament for Aggression

Predictor variable		R^2	F	β	t
Temperament	Novelty Seeking	.28	17.37***	.40	6.41***
	Harm Avoidance			-.02	-.24
	Reward Dependence			.01	.21
	Persistence			.10	1.62

*** $p < .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relation to Novelty seeking and Offensive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R^2
					LL	UL	F	df1	df2	
Aggression	Novelty Seeking	.743	.085	8.767***	.576	.909	76.855***	1	297	.206
Offensive behavior	Novelty Seeking	.009	.005	1.885	-.000	.019	16.592***	2	296	.101
	Aggression	.012	.003	3.400**	.006	.018				
Offensive behavior	Novelty Seeking	.018	.005	4.047**	.010	.027	16.378**	1	297	.052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1$, *** $p < .00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 of Novelty seeking on Offensive behavior through Aggression

	B	Boot SE	95% CI	
			LL	UL
Aggression	.112	.023	.070	.16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behavior in relation to Novelty seeking and Offensive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R^2
					LL	UL	F	df1	df2	
Drinking behavior	Novelty Seeking	.080	.014	5.913***	.054	.107	34.971*	1	297	.105
Offensive behavior	Novelty Seeking	.013	.005	2.707*	.004	.022	15.395*	2	296	.094
	Drinking behavior	.071	.019	3.703**	.003	.033				
Offensive behavior	Novelty Seeking	.018	.005	4.047**	.010	.027	16.377*	1	297	.052

* $p < .05$, *** $p < .001$

은 10.1%가 되었다, $F(2,296)=16.592, p<.001$. Table 4와 같이 자극추구가 공격성을 매개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12, 95\% CI [.070, .161]$.

3.4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음주 행동의 매개효과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음주행동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자극추구, 종속변인으로 가해행동, 매개변인으로 음주행동을 투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극추구는 가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70, p<.01$,

음주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080, p<.001$. 자극추구와 음주행동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극추구, $B=.013, p<.05$, 와 음주행동, $B=0.071, p<.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음주행동은 자극추구와 가해행동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 음주행동을 더하면 4.2%를 추가로 설명하여서, 총 설명량은 9.4%가 되었다, $F(2,296)=15.395, p<.001$. Table 6과 같이 자극추구가 음주행동을 매개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음주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70, 95\% CI [.041, .103]$.

Table 6. Bootstrapping result of Novelty seeking on Offensive behavior through Drinking behavior

	B	Boot SE	95% CI	
			LL	UL
Drinking behavior	.070	.016	.041	.103

Table 7.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in relation to Novelty seeking and Offensive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R ²
					LL	UL	F	df1	df2	
Aggression	Novelty Seeking	.743	.085	8.767***	.576	.909	76.855***	1	297	.206
	Aggression	.098	.007	13.324***	.084	.113	116.637***	2	296	.441
Drinking behavior	Novelty Seeking	.007	.012	.614	-.016	.031				
	Aggression	.008	.004	2.184*	.001	.016				
Offensive behavior	Drinking behavior	.039	.024	1.609	-.009	.086	11.984***	3	295	.109
	Novelty Seeking	.009	.005	1.831	-.001	.019				
Offensive behavior	Novelty Seeking	.018	.005	4.047**	.010	.027	16.378**	1	297	.05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Verif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Novelty seeking, Offensive behavior, and Aggression, Drinking behavior Sequential Mediating Effect

	B	SE	t	95% CI	
				LL	UL
Total effect	.018	.005	4.047**	.010	.027
Direct effect	.010	.005	1.831	-.001	.019
Indirect effect(total)	.116	.024		.072	.165
Mediation effect 1: X→M1→Y	.077	.029		.024	.139
Mediation effect 2: X→M2→Y	.001	.006		-.009	.017
Mediation effect 3: X→M1→M2→Y	.035	.017		.002	.068

** $p < .01$

3.5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자극추구, 종속변인은 가해행동으로 설정한 후 매개변인으로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극추구는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018$, $p<.01$, 공격성에도 정적 영향을 주었다, $B=.743$, $p<.001$. 공격성과 자극추구를 음주행동에 투입했을 때, 공격성은 음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098$, $p<.001$, 자극추구는 음주행동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7$, $p=.540$. 마지막으로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모든 변인을 투입했을 때 Table 7에는 자극추구가 공격성을 통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008$, $p<.05$. 그러나 공격성과 자극추구를 통제하자 음주행동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B=0.39$, $p=.109$, 공격성과 자극추구를 통제하자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서, $B=.009$, $p=.068$,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더하면 5.7%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설명량은 10.9%이었다, $F(3, 295)=11.984$, $p<.001$.

독립변인(X)은 자극추구, 종속변인(Y)은 가해행동, 첫 번째 매개변인(M1)은 공격성, 두 번째 매개변인(M2)은 음주행동으로 설정한 후 자극추구가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거쳐서 가해행동에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측정할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1($X \rightarrow M1 \rightarrow Y$)는 유의하였고, $B=.077$, 95% CI [.024, .139], 음주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2($X \rightarrow M2 \rightarrow Y$)도 유의하였다, $B=.001$, 95% CI [-.009, .017].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친 매개효과3($X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자극추구가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거쳐서 가해행동에 이르는 순차적 매개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35$, 95% CI [.002, .068].

4. 논의

기질은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알게 되면 한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일 수 있다. 해마다 음주 후 발

생되는 폭력 및 상해를 입히는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기질과 음주 후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연결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의 기초가 되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성인음주자의 가해행동은 기질 변인으로는 유일하게 자극추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공격성과의 관계로는 신체적, 언어적, 분노감 및 적대감의 4가지 모든 공격성의 하위차원과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음주행동의 하위척도인 음주량 및 음주빈도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곧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며 자극에 반응이 빠른 반면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자극추구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음주 후 가해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이다. 다음,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와 적대감이 큰 사람이, 음주빈도와 음주량 또한 큰 사람이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의미이다.

공격성 차원에서는 자극추구 기질만이 신체적, 언어적, 분노감 및 적대감의 4가지 모든 하위 차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위험회피 기질은 분노감 및 적대감의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인음주자의 경우에 공격성이 높다는 것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자극추구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 및 적대감의 모든 공격성 하위 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위험회피가 높은 경우는 직접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는 의미 있는 관련은 없고 단지 내적인 분노 및 적대감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음주빈도는 자극추구 기질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음주량은 자극추구 기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음주행동의 두 가지 모든 하위 변인들은 모든 형태의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음주빈도 및 음주량 모두 기질적으로는 자극에 재빨리 반응하고 따라서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며 잘 분노하는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것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체적, 언어적, 분노 및 적대감이 높은 것과 연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알코올 남용, 즉 음주 행동과 공격성의 관계[23]를 통해 성인음주자의 가해행동을 시사한 연구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빈번한 음주횟수 및 과도한 음주량과 같은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성

격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들[27]에서도 다양한 음주문제의 선행요인으로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이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둘째, 자극추구가 공격성을 거쳐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때 공격성의 역할은 완전매개로서 즉, 자극추구 성향은 신기하고 진기한 것을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고 자극에 대한 접근이 빠름과 함께 흥분을 잘하고, 충동성이 크며,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특징이 있지만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공격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음주자의 가해행동은 자극추구 기질의 문제이기 보다는 자극추구 기질이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음주자의 가해행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격성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노, 적대감, 신체적 및 언어적인 공격성을 다룰 수 있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 정서 인식 및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접근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는 가해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셋째, 자극추구가 음주행동을 거쳐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에 대한 가설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충동적이고 자극에 잘 이끌리며 즉흥적인 자극추구 성향은 음주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주행동이 증가할수록 가해행동의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때 음주행동은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이 결과만을 가지고 볼 때는 자극추구 성향은 직접적으로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음주행동을 통해서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자극추구 성향은 행동 통제의 부족(behavioral undercontrol)을 반영해주는 성격 특성이며, 행동 통제의 부족이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지적되어 온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18,28]. 그러나 이 결과는 다음의 네 번째, 본 연구의 최종 가설 검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자의 공격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이 세 번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들은 기질과 음주행동 사이의 공격성의 성향을 간과함으로써 얻은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음의 최종 가설 검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질과 가해행동 사이에는 공격성과 음주행동의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은 순차적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순차적 매개역할이 가

리워져 있을 경우에만 우리의 이 세 번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18,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질이 직접적으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최종 가설인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순차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투입했을 때 자극추구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극추구와 가해행동 간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자의 가해행동은 그들의 자극추구 기질 성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자극추구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문제인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격성과 음주행동은 자극추구 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자극추구 기질이 높다고 누구나 공격성과 음주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질은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성향으로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이지만 공격성과 음주행동은 환경 및 성격의 영향과 관련된 속성으로서 기질보다는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이라 보아진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심리-치료적 관점으로 적용하면, 변화되기 쉽지 않은 기질을 치료하기보다는 매개 역할인 공격성을 우선적인 치료 목표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가정된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처리되지 못하는 공격성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음주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공격성을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자기개방 등의 개입을 하는 것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공격성 조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음주빈도나 음주량과 같은 음주 행동에 대한 치료 과정이 요구된다. 공격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교육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들이 스트레스 사건마다 빈번한 술자리를 갖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응기술을 훈련시키며, 자기변화(self-change)를 촉진하고, 부정적 생활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이 적응적인 음주행동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음주행동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가해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음주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10.9%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을 연결하는 기제로 공격성과 음주행동이 검증되었지만, 두 변인의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의 변인이 존재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음주에 대한 자기 효능감[29], 음주 동기[30],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 등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두 매개변인과 더불어, 앞서 말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재검증한다면 설명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 측정을 한 번에 마시는 1회 음주량을 조사하였다. 한 번에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연구에 반영될 수는 있었지만, 1회 음주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여, 총 음주량이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음주자들의 다양한 음주형태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기질적 특성은 개별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질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기질 유형이라고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질 유형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기질 유형에 따라서 음주 후 가해행동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기질 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도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대상이 주로 학력 상 대졸에 해당되는 비교적 고학력자이면서 대부분 소득 상 중산층에 속하고 연령상 30대가 근 40%에 이르는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곧, 본 연구결과는 대졸, 중산층, 30대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져서 연구결과를 한국의 성인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임상집단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도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 지지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질과 가해행동을 연결하는 기제를 검증하여 자극추구 성향과 음주 후 가해행동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음주 후 가해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 과정에 공격성과 음주 행동의 순차적 매개 역할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음주 후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 변인을 밝혔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 Y. Han, M. K. Lee & H. C. Shin.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03-1019.
- [2] S. M. Han. (1997).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college students with drinking problem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 [3] Y. B. Lee & J. K. Park.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Motive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Problematic Drinking : Dysfunctional Beliefs as a Mediator.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2), 359-376.
- [4] M. L. Joo. (2017. 11. 08). Is there a 'drinking clean-up zone' in Jeju. *News of Kukminilbo* [Onlin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4951&code=11131426&cp=nv>
- [5] J. Y. Shin & C. N. Son. (2011). The Effects of the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MBCT) Program on Depression, Impulsivity,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 Drink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279-295.
DOI : 10.17315/kjhp.2011.16.2.003
- [6]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1990). *Broadening the base of treatment for alcohol problem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7] K. Bush, D. R. Kivlahan, M. B. McDonell, S. D. Fihn, & K. A. Bradley. (1999). The AUDI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 An Effective Brief Screening Test for Problem Drinking. *JAMA Internal Medicine*, 159(16), 1789-1795.
DOI : 10.1001/archinte.158.16.1789
- [8] P. D. Quinn & K. Fromme. (2010). Self-regulation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y drinking and sexual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3), 376-385.
DOI : 10.1037/a0018547
- [9] H. Wechsler & T. F. Nelson.(2001). Binge drinking and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ing *Journal of Addictive Behavior*, 15(4), 287-291.
DOI : 10.1037/0893-164x.15.4.287
- [10] J. S. Baer. (2002). Student factors: understanding individual variation in college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14, 40-53.
DOI : 10.15288/jsas.2002.s14.40
- [11] H. W. Shin. (1999).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Drink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105-122.
- [12] I. S. Kim, M. H. Hyun & J. M. You. (2001). Risk / Vulnerability Factors of Drinking & Drinking Problem : Data Mining Answer Tree and Neural Conne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2), 75-95.

[13] B. B. Min, H. Oh & J. Y. Lee. (2007).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manual*, Seoul : Maumsarang.

[14] M. K. Rothbart & J. E. Bates.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3), 105-176.
DOI : 10.1002/9780470147658.chpsy0303

[15] H. Y. Lee. (2006). Psychologizing Alcoholism. *Korean Medical Association*, 49(2), 99-107.

[16] C. R. Cloninger, T. R. Przybeck & D. M. Svrakic.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8-990.
DOI : 10.1001/archpsyc.1993.01820240059008

[17] P. Basiaux, O. Le Bon, M. Dramaix, I. Massat, D. Souery, J. Mendlewicz, I. Pelc & P. Verbanck. (2001).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personality profile and sub-typing in alcoholic patients : a controlled study. *Alcohol and Alcoholism*, 36(6), 584-587.
DOI : 10.1093/alcalc/36.6.584

[18] H. J. Yoon, M. K. Lee, T. K. Lee & J. I. Lee. (2004). Exploration of Personality Trait in Alcoholics.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8(2), 142-148.

[19] C. Evren, M. Durkaya, B. Evren, E. Dalbudak, & R. Cetin. (2011). Relationship of relapse with impulsivity, novelty seeking and craving in male alcohol-dependent inpatients. *Drug and Alcohol Review*, 31(1), 81-90.
DOI : 10.1111/j.1465-3362.2011.00303.x

[20] M. S. Jo.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lcoholism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 to Wife Battering.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3(1), 102-110.

[21] C. R. Cloninger, T. R. Przybeck, D. M. Svrakic, & R. D. Wetzel.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22] Y. Y. Park. (2002). *The Effect of Private-Self Consciousness and Trait-Anger on Drinking Problem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Aju University, Suwon

[23] S. M. Cheon, Y. S. Lee, & H. R. Lee. (2000). The Effect of Cognitive - Behavioral Group Therapy on Neurotic Juvenile Delinquents` Anger 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53-82.

[24] D. M. Dougherty, D. R. Cherek, & R. H. Bennett. (1996). The effects of alcohol on the aggressive responding of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2), 178-186.
DOI : 10.15288/jsa.1996.57.178

[25] K. H. Kim. (2006). Addiction and Self-Regulation: A Cognitive Neuroscience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63-105.

[26] S. K. Park, S. K. Kang, K. H. Kim, K. H. Seo, S. M. Shin,

H. C. Lee, & Y. M. Jeon. (2017), *Addiction understanding and consultation actual*. Hakjisa corp, seoul : Hakjisa Publishing.

[27] M. O. Howard, D. Kivlahan, & R. D. Walker. (1997). Cloninger tridimensional theory of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Applications to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48-66.
DOI : 10.15288/jsa.1997.58.48

[28] C. Evren, D. Mine, E. Bilge, D. Ercan, & C. Rabia. (2012). Relationship of relapse with impulsivity, novelty seeking and craving in male alcohol-dependent inpatients. *Drug and Alcohol Review*, 31, 81-90.
DOI : 10.1111/j.1465-3362.2011.00303.x

[29] Y. M. Kho, M. H. Hyun, & J. S. Park.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4), 891-909.
DOI : 10.17315/kjhp.2009.14.4.012

[30] K. M. Park, M. K. Lee. (2005).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ocial support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3), 277-293.

임 대 경(Dae-Kyeong Lim)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 학원 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중독, 성격심리
- E-Mail : dladygk@naver.com

오 현 숙(Hyun-Sook Oh)

[정회원]



- 1990년 7월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 학교 (J. W. Goethe University, Frankfurt/M) 심리학과 학부(졸업/학 석사과정)
- 1994년 7월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 학교 (J. W. Goethe University, Frankfurt/M) 심리학과 (석사)
- 1999년 6월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J. W. Goethe University, Frankfurt/M) 심리학과, 임상및상담심리전공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상담심리, 정신병리학, 성격심리.
- E-Mail : hyunsookoh@hs.ac.kr